출판예고제 도입 움직임 본격화한다

아직은 단순한 정보제공 단계…예약제로 연결될 때 제 기능 발휘

국내 출판계에도 과학적인 경영과 선진적인 출판문화의 정착을 의미하는 출판물예고제도가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다. 흔히 '근간'의 이름으로 신간서적의 뒷날개에 게재되어 머잖아 곧 나올 책에 대한 소개는 있어왔으나 가깝게는 2, 3개월에서 멀리는 1년 내외에 출간될 책의 자세한 정보를 담은 소형 책자의 발간은 불과 최근 일.

러시아문학 전문출판사인 열린책들(대표 홍지웅)이 지난 5월초 국내 출판사로는 처음으로 근간도서 안내 팸플릿인 「북캐스트」를 발간한 데 이어 국립중앙도서관은 조만간 「출판예정도서목록」을 펴내 전국의 도서관 및 서점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교보문고가 자사 북클럽 회원들에게 보다 고급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구촌북정보」에 근간도서 정보를 싣는가 하면 종로서적의 「신간소식」, 도서유통협의회의 「월간 책」도 이미 간단한 형태로 나마 근간도서목록을 올초부터 시범적으로 실어왔고, 영풍문고의 「신간뉴스」, 신간정보지의 「새책소식」도 곧 출판물예고제 정보를 싣기로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아직은 간단한 목록소개 수준

이처럼 곧 나올 책에 대한 소개를 미리하는 출판물예고제가 출판사와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본격화하게 된 것은 이제 우리 출판업도 책임있는 '기획출판'과 과학적인 경영으로 한 단계 진보한 출판문화를 가져보자는 묵은 바람이 '책의 해'를 기점으로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북캐스트」를 발행한 열린책들의 홍지웅 사장이 "출판사가 어떤 장기적인 기획을 갖고 책을 펴내고 있는가를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책출판의 과정을 잘 모르는 독자들이나, 중복출판이나 시류에 편승하는 급조현상이 출판계 모두의 일인 양 생각하고 있는 독자들의 불신에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나, 종로서적의 이철지 사장이 "신간이 나오면 무조건 들이미는 식의 지금의 방법으로는 점두에 진열돼보지도 못하고 반품되는 책이 태반일 수밖에 없는데, 출판사예고제를 통해 서점이 필요한 책을 미리 주문하게 되면 서점운영이 훨씬 효율적이게 될 것이다"는 지적에서 보듯 이제 시작단계인 출판예고제는 출판물량이나 출판사 수 등 국내 출판업계의 규모에 비추어보아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현재 실시중인 출판물예고의 형태는 정보를 내보내는 곳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열린책들의 「북캐스트」가 오는 7월 출간 할 프랑스의 작가 베르베르의 연작소설 「개미」에 대해 줄거리 소개, 작가연보, 프랑스 현지의 반응, 번역자의 독후감, 그리고 6월호엔 번역자가 프랑스로 직접가서 작가와 나눈 인터뷰 기사 등 타블로이드판형 지면의 서너페이지를 할애, 상당히 상세한 소개를 하고 있는 반면 종로서적의 「신간소식」에 실린 '앞으로 나올 책'은 책제목, 저자 및 역자, 판형, 서너줄의 해제, 출간예정월 등의 간략한 정보를 담고 있다. 「월간 책」 역시 올초 '93출판사 근간예정 도서목록'을 5페이지 정도의 지면에 내보내면서 나남, 돌베개, 보진재, 사계절, 민음사, 서광사, 세광음악출판사, 세계사, 성림, 열화당, 장백, 청아, 창작과비평사, 풀빛, 타임스페이스의 근간도서에 대한 간단한 내용소개와 판권사항을 적고 있다.

출판사에서 펴내는 예고정보가 한두권의 주력도서에 대한 풍부한 소개와 나머지 근간 도서의 간단한 소식을 실을 수 있다면, 서점이나 책정보지에 실리는 예고정보는 매체의 특성상 확보할 수 있는 가능한 여러 출판사의 근간정보들 두루 담는 차이를 보인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곧 펴낼 「출판예정도서목록」은 수록범위나 발행일자 면에서 앞서의 소식지들과 일정한 차이가 있다. 이 기관이 ISBN과 ISSN을 관장하는 '한국문헌번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활용한 점이다. 한국문헌번호센터에 가입한 출판사는 적어도 책 출간 보름 전에는 반드시 ISBN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 국립중앙도서관 측은 이때 얻게 된 근간도서에 관한 각종 정보를 모아 목록화하여 보름 단위로 전국의 도서관 서점 등에 배포할 예정. 그렇게 되면 ISBN에 가입한 출판사의 근간목록을 독자들은 보름 또는 한달 가량 전에 미리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오히려 중복출판 막을 수 있다"

미국에서 서점업을 하다 91년 말부터 서울 을지서적의 한 코너에서 외서가게를 열고 있는 조승훈씨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에선 이미 정착된 제도"라며 미국의 경우 봄·가을 1년에 2번 근간도서 캐털로그를 펴내는 것이 출판사들의 관행이라고 말한다. 국내에 와서 서점업을 하며 근간도서 정보지 없이 어떻게

곧 나올 책에 대한 소개를 미리하는 출판물예고제가 출판사와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본격화하게 된 것은 이제 우리 출판업계도 책임있는 '기획출판'과 과학적인 경영으로 한 단계 진보한 출판문화를 가져보자는 묵은 바람이 '책의 해'를 기점으로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최초의 근간 도서 안내 팸플릿인 열린책들의 「북캐스트」.

서점운영을 하는지 이상했었다는 조씨의 경우, 올 9, 10월경 출간될 外書의 주문이 이미 끝난 상태. 출판사별로 나와 있는 근간 캐털로그나, 「퍼블리셔서 위클리」나 「초이스」와 같은 대표적인 예고지를 통해 고객이 찾을 책을 선정, 주문에 들어간 것. "고객층을 분석하여 필요로 하는 책을 결정하고 판매될 책의 부수를 점쳐 반품을 최소화하는 등의 주체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을 하는 데 출판예고제는 꼭 필요하다"는 게 조씨의 이야기다.

신간이 독자의 손에 쥐어지기도 전에 시장조사용으로 제작된 가제본책의 서평이 예고지에 실리고, 도·소매상을 통해 살펴진 근간도서에 대한 반응이 출판사의 생산부수를 결정하는 일과 같이 예고제가 이미 정착된 국가의 경우 출판환경이 여러모로 다른 우리의 경우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한다는 것은 아직 무리이겠으나, 출판예고제의 시행을 둘러싸고 내보이는 갖가지의 반응은 서점업계의 대체적인 '지지'에 비해 출판사들은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편.

출판사들은 예고제도가 업계 공통으로 정착된 이후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복안'에 속하는 '기획거리'를 내놓을 경우 누가 가로채 가지나 않나 하는 우려가 큰 것 같다. 이는 국내 출판계에 고질화된 병폐 가운데 하나인 중복출판에 대한 피해의식 때문인데, 열린책들의 홍지웅 씨는 "오히려 중복출판을 막아 불필요한 힘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어린왕자」가 현재 63社에서 중복출판돼 있는 사례에서 보듯 중복출판은 출판업자의 양식의 문제이지 근간정보의 공개와는 상관없는 일로 예고제로 생길 어느 정도의 역기능도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유익할 순기능을 생각하면 출판예고제는 출판사와 유통업계가 힘을 합쳐 정착시킬 일이라고 강조한다.

업계에서 지적하는 순기능을 요약해보면, 첫째 출판계에 기획출판이 정착되어 따라서 출판사의 책임감이 높아지며, 둘째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장기적으론 중복출판이 사라지게 되고, 셋째 서점에서 필요한 책과 부수를 선택하여 주문할 수 있으므로 과학적인 경영을 할 수 있으며, 넷째 근간도서에 대한 반응을 미리 관찰할 수 있어 생산에 효율화를 기할 수 있고, 다섯째 책의 기획, 생산, 판매가 통계 분석을 토대로 운용됨으로써 과대광고와 같은 불필요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것 등이다.

"아직은 일부 출판사에 국한되어 있고, 내보내는 정보도 책에 관한 대강의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지나치게 소략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는 이중한(출판평론가) 씨는 독자에게 단순히 정보 한 가지를 더 준다는 현재의 차원을 지나 수렴된 반응을 통해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혜옥 기자